



불서읽기 캠페인

염불 정진 100일이면 '참맛' 본다

만세의 티끌 번뇌 뛰어넘는 미묘의 길이 염불

현실적 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염불을 시작하는이 위해 만들어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그 명호를 부름이 염불이다. 염불은 만세의 티끌 번뇌를 뛰어넘는 묘한 길이요.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지름길이다.'

<100일 염불수행>은 '백 개의 글제(百題)'로 백일 염불 정진을 완성시키는 수행 안내서다. 염불과 사례를 순차적으로 간략히 정리해 이해하기 쉽고 신심을 북돋아 준다. 일일 일제씩 되풀이해 음미하다보면 염불수행이 저절로 몸에 동화되고 지식을 넘어 건전한 정신으로 변화되는 길을 모색한다. 불교에서 '염불'하면 알아야 할 핵심을 총망라한 기초 지식서로 손색이 없다.

참선과 염불을 시작으로 잡념을 제거한 대 원력은 극락왕생을 서원한다. 저자는 대행(大行) 화상이 전하는 염불 공덕 열 가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부처님 가피를 입는다·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행하기 쉽다·공덕이 가장 많다·자타가 지극히 기뻐한다·부처님을 빨리 친견할 수 있다·반드시 불퇴전의 지위를 얻는다·극락세계에 왕생한다·다시는 부처님과 헤어지지 않는다·수명이 길어진다·성인과 더불어 다름



100일 염불수행

송성수 저음|불교시대사 펴냄 | 1만5000원

이 없다'는 것이다.

<100일 염불수행>의 저자 송성수씨는 조계종 역경위원으로 30여 년 간 역경사업에 종사해 온 학자이다. <대지도론><유가사지론> 등 다수의 경전을 한글로 번역했다. 스스로를 부서진 수레(破車不行 老人不修)에 비유해 현실적 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수행자 중에는 정토교에 대해 잘 아는 이도 있었지만 나와 같이 잘 모르고 무관심했다가 처음 염불을 시작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며 "경전이나 논에서의 말씀과 정토를 친한 스님들의 말씀, 정토 수행인들의 왕생 영험담을 다시 보고 들음으로써 성불을 기원한다"고 저술 동기를 밝힌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불교학 전공자 위한 연구서

"나는 약 100년 동안 불교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불교학의 몰락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교가 지식인들에게 미신으로 보여 더 이상 중시되지 않는 것도 불교학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 양혜이난(前 대만대학교 철학과 교수)은 인도불교에서 중국불교에 이르는 사상적 흐름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아우른다. 중국문화대학교와 대만대학교 철학과에서 수년간 개론강의를 통해 축적한 핵심내용을 간추린 불교학 전공자를 위한 사상 연구서다.

<불교사상사>는 당시 인도의 사상계와 중국의 종파불교를 배경으로 평면적 개론 설명과 획정인 역사 설명을 교차하는 서술구조로 전개된다. 사전적 의미로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면서 수행과 교학의 조화를 모색한다. 곳곳에 배어있는 저자의 안타까움 이상의 연민은 부처님의 신격화와 불교의 신비화, 제왕과 귀족세력에 의지해 정치적 도구로 전락되는 역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불교를 표현한다.

불교가 인도에서 쇠퇴해 중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은 불교사의 중요한 획이다. 북방 불교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 정착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인도불교의 중국화는 보편성과 자기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사상사의 흐름은 근본불교의 실용주의와 분열·부파 분화와 대승불교 문헌의 집대성으로 세밀하게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에 전래된 불교가 당시 중국 지식계의 반응과 어울려 종파를 형성하는 등 시간의 차이를 문헌에 근거해 서술한다. 부처님이 가르치려고 한 본래 뜻을 탐구하고자 하는 저자는 주관적인 견해를 경계하며 개념의 다양성을 넘나든다.



불교사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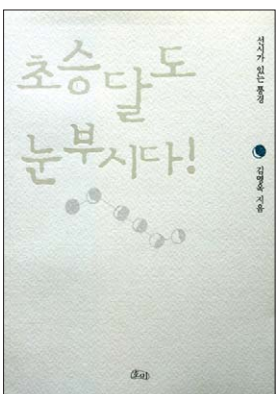
양혜이난 저음 | 원형성 옮김
정우서적 펴냄 | 1만5000원

가연숙 기자

수행자의 면모 소설로

초승달도 눈부시다! 김영옥 저음 | 호미 펴냄 | 1만원

선시(禪詩)와 선화(禪話)가 만나 마음을 울린다. <초승달도 눈부시다!>는 정진 중인 아홉 수행자를 진솔하게 심지 깊은 붓끝으로 써내려간 선(禪)수행의 향기를 머금은 소설이다. 바람 끝 한 점 들리지 않은 채 고요한 산중에서 만월을 향해 버리고 든 초승달의 꺾임을 눈부시게 담았다.



<초승달도 눈부시다!>는 저마다 처한 곳에서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수행자의 면모를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조사들의 경지를 가능하는 선사와 어울려 실상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지은이의 문학적 감성으로 치밀한 감흥을 전한다.

가연숙 기자

인생의 '진짜 가치'는?

선계에 가고 싶다1·2 문화영 지음|수선재 펴냄 | 1만2000원

인생의 성공은 본성과 마주하는 것이다. 저자는 비로소 나를 만났을 때의 감흥을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되지 않는다. 그저 울고 또 울었다"고 고백한다. <선계에 가고 싶다>는 인생에 대한 근원적 의문을 풀어주는 '인생 지침서'이다.



내 인의 세계인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한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보장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저자가 우연히 시작한 '호흡과 명상'은 사회적 명성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의 송고한 가치를 일러준다.

가연숙 기자

'불경' 어렵지 않아요

처음 만나는 불경 이야기 김장호 저음|심포지움 펴냄 | 9800원

판만 사천의 무수한 불경에서 아름다운 별무리를 볼 수 있다면? <처음 만나는 불경 이야기>는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는 길라잡이 서적이다. 설화를 바탕으로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한 교양과 상식으로 불경의 진수만을 업선했다.



저자는 '아지랑이는 멀리서 보면 실제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없구나. 인간의 마음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일어났다 잠재워지듯 결국 실제란 없구나' 읊조린다. 무더운 여름 날 길 위의 아지랑이에서 피어나는 물거품과 같은 무상의 진리를 본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3	이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문주사
4	신심	해인	클리어마인드
5	원력	해인	클리어마인드
6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7	나를 깨우는 108배	구분일	김영사
8	진언 다리니 수행 일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9	절을 가차게 잘하는 법	형건	붓대의 마을
10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들

*불서출판 문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모 불교문화원 범음범패·불화·단청 신입생 집

제방의 사암에서 수행정진과 전법도생에 여념이 없으신 출가 수행승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의 범체정안 하모기를 추수기원 합니다.

금년 본 불교문화원에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50호인 영산재 의식과 48호인 단청 부문의 강좌를 개설하여 뜻있는 스님들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을 모실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범음범패과> 1년과정 (4학기제)

- 초급반 : 사물, 도량석, 조석예불및 종성, 각종불공
- 중급반 : 시련, 대령, 관육, 신중작법, 상단권공, 중단권공, 관음시식
- ※ 공 통

소 리 : 종성, 거불, 복청계, 천수대장타법, 도량계, 현좌계, 기영, 향수나열
바 라 : 요점, 천수바다, 사다라니, 화의제바라
나비춤 : 도량계, 다계

- 개강일시 : 2008년 9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매주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수업)
- 수 업 료 : 입학금 10만원, 매학기(3개월) 30만원
- 특 전 : 매년 1~2차례 봉원사 영산재 보유자 초청특강, 장학생 수업료 면제, 수료후 각종 행사 지원알선
- 강 사 : 준범스님(봉원사 옥천법음대 출신)

<불화, 단청과>

- 초 급 반 : 불교기초이론, 시왕초 등선구기, 덧생실기, 문양그리기, 채색법
- 중 급 반 : 시왕, 여래, 보살, 사천왕 그리기 완성
- 고 급 반 : 각종 소품 및 탕화제작
- 연 구 반 : 단청문양, 불상개공, 탈마도연구
- 개강일시 : 연중 수시모집
- 수 업 료 : 입학금 5만원, 매월 5만원
- 특 전 : 신심돈독한 성적우수자는 전문가로 양성.
- 강 사 : 영범스님(30년 경력의 불화작가)
- 다음카페 : '불화교실' 운영

한국불교태고종대구교구 중무원 부설 불교문화원
문의처 053)622-3702 / H·P 011-814-0648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회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고무신코 만행화

2008년 9월 5일 - 8일까지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예정

-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 지압솔리퍼**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 검정
- 작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 지압·동결방지**
• 가격 15,000원
• 사이즈 : 230-280
-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 검정
-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3-1 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 회색
- 망사단화**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3-1 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 회색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 (구자민) 합장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